

이다. 사람들이 모두 우주의 진상을 보게 되고, 또한 신의 존재를 보게 된다면, 그러면 사람마다 모두 잘할 것인즉, 사람에게 무슨 기회를 준다는 말도 필요 없으며, 사람을 제도할 필요도 없고, 사람마다 모두 방법을 생각해 잘하려고 할 것이다. 그는 매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으며, 모두 수련하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수련이라 칠 수 있겠는가? 설령 수련할 수 있다 해도, 내가 생각하기에 그 수련은 틀림없이 매우 더딜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진상을 보았기에, 신이 바로 거기에 있으므로, 그 것이 바로 목표라, 가는데, 끝에 도달할 때까지 마냥 갈 것이다. 그러나 이 미혹 속에서는 그 끝을 볼 수 없고, 당신의 목표를 볼 수 없으며, 심지어 당신이 한 그러한 위대한 일도 당신은 실질적으로 발휘한 그 작용을 모두 보지 못하는 데,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당신이 걸어 나올 수 있고, 수련해 낼 수 있다면, 신마저도 탄복하며, 모두 당신이 이러한 고생과 이러한 미혹 중에서, 이러한 각종 교란이 있는 환경에서 각종 세간(世間)의 명(名)·이(利)·정(情)의 유혹에서 벗어났다고 여긴다. 당신이 능히 사람 중에서 걸어 나왔을 때, 신은 비로소 탄복하며, 비로소 당신이 대단하다고 여기며, 하나의 신이 되는 데 손색이 없느바, 이것이 바로 위덕이다. 만약 이렇지 않고, 이 삼계, 이 인류가 모두 우주

法輪大法

各地講法 五

각지설법 5

李 洪 志

며, 게다가 당신들이 한 일체는 세인들도 보게 된다. 그러나 대법제자로서 너무나 고생이 많은데, 북방의 겨울은 매우 추우며, 찬바람이 땀속까지 파고드는데도, 대법제자들은 여전히 거기서 견지하고 있는데,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매한 사람은 모두 자신의 법을 실증하는 길을 걷고 있는바, 그런 수련생들도 자신의 법을 실증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제자: 사부님께서는 자주 대법제자의 위덕을 언급하셨는데, 물론 저는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일체를 믿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한 작은 일의 위력을 보기 어려운데, 보기에는 그저 강대한 하류(河流) 중의 한 방울의 물일뿐입니다. 저는 계속 법 공부할 것이며, 일체는 모두 법속에서 명백해질 것입니다.

사부: 느끼기에는 이러하다. 왜냐하면 인류사회의 일체 생명은 기본적으로 모두 미혹 속에 있기 때문인데, 특히 사람에게 대하여 가장 심하게 미혹되게 했다. 목적은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바, 바로 이 미혹 속에서 사람에게 하나의 돌아갈 기회, 수련하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진상을 볼 수 없을 때, 사람이 그래도 잘할 수 있고, 게다가 고생 속에서 수련을 견지하는, 이것이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관건

천 년 묵은 썩은 시체로부터 흩어져 나온 한 가닥의 사기(邪氣)가 두꺼비 태(胎)로 되었는데, 구세력에 선택되었는바, 좁은 속으로 질투하며 관료사회의 인간관계 중에서 그것이 사람을 다스리고 패거리를 만들며, 큰 뜻을 품지 않고 아첨하는 소인배의 그러한 것들을 양성했는데, 구세력은 사람 찌꺼기의 요구에 완전히 도달했다고 느꼈으며, 더하면 더했지 모자라지는 않고 심악을 다 갖추고 있어, 손에서 놓기 아쉬워하면서, 때가 되면 꼭 쓰기 적합할 것으로 생각했다. 구세력이 골라서 선택한 것이고, 또 일부러 양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당시 선택할 때 바로 사(邪)하기를 요구했고 어리석기를 요구했기에, 그것의 전반 표현은 모두 그러하다.

제자: 저희에게 다시 한 번 영사관 앞에서 연공하고, 발정념하고, 청원하는 의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매일 같이 영사관 앞에서 연공 하는데,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구애받지 않으며, 비록 여건이 좋지 않지만, 모두 매우 확고합니다.

사부: 각국에 있는 영사관은 그들의 창구인데, 그것은 중국 국외 민중이 의견을 표시하는 곳이므로, 물론 갈 수 있다. 거기에도 구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에, 의의가 중대하

차 례

2004년미국서부법회설법	1
2005년맨해튼국제법회설법	87
2005년캐나다법회설법	111

제자: 우리 지역의 한 대법제자는 대법 일이 바쁘다고 가정에서 마땅히 저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사부: 문제를 제출한 수련생도 집착이 있는 것 같은데, 사부의 입을 이용하지 마라.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것은 어디에서든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대법제자라고 말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가정의 일을 잘 처리해야 하고, 직장 환경 중의 일도 잘 처리해야 한다. 대법제자로서, 당신의 수련이 어떠한가는 세인들 앞에서 마침 이런 데서 체현된다. 당신은, 나는 잘 수련했고, 나는 대법제자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당신이 오히려 세인들에게 이런 방면에서의 표현이 좋지 않으면, 당신이 수련을 잘했다는 것을 어떻게 체현할 수 있겠는가. (웃음) 그렇지 않은가? 물론, 우리 어떤 대법제자들은 수련을 잘했는데, 다만 이런 방면을 소홀히 했을 따름이며, 그러나 수련을 잘한 상태는 인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수련인이 자연적으로 지니게 되는 것이다.

제자: 구세력이 선택한 중국의 그 사악의 우두머리, 그것의 역사는 반드시 명예롭지 못할 것입니다.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의 내력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부: 그것은 사실 무슨 내력이라는 것이 없으며, 바로

뜻이다.

제자: 대만 뉴스보도의 각도는 어떻게 양안(兩岸)을 대비하는 데 치중해야 합니까?

사부: 대만 뉴스보도의 각도는 어떻게 양안을 대비하는 데 치중해야 하는가? 무슨 뜻인지 똑똑하게 쓰지 않았는데, 사실 당신은 法輪功(파룬궁)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동한 태도를 말하려 한 것 같다. 어떻게 대비하는가? 양안의 태도 자체가 대비가 되는 것이다. 같은 선조, 같은 문화, 두 지역의 대법에 대한 두 가지 태도, 그 자체가 바로 대비되는 것이 아닌가? 진상을 알리는 문장에서 대비하는 방식으로 세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제자: 대재벌그룹, 그들에게 진상을 똑똑히 알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부: 현재 이 일보에 이르러, 나는 그가 대재벌 그룹이든 중소기업 그룹이든 가리지 않는다. 어쨌든 마땅히 구해야 한다면 우리는 구하고, 해야 한다면 당신들은 하는 것으로,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라. 구원을 받으려 하고 안 하고는 사람 자신의 일이다.

二零零四年美國西部法會講法

2004년미국서부법회설법

李洪志

2004년 2월 28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도 그는 상관하지 않는데, 그가 좋은 사람인가? 대법이 육성한 생명, 대법이 부여한 새 생명으로서, 대법제자들이 모두 박해받고 있고 대법이 파괴되는 이런 형세가 나타났을 때, 당신이 오히려 대법을 수호할 수 없다면, 그것이 대법제자인가? 최저한도의 좋은 사람 자격에도 미치지 못하는바, 게다가 당신은 진정으로 이익을 얻었던 사람임에랴. 이는 신(神)의 눈으로 본다면 가장 나쁜 생명으로서, 법을 직접 박해한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나쁘다. 왜냐하면, 대법제자들을 박해한 사람 그는 대법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러한 악인들보다 더 나쁘다. 게다가 이것은 우주의 일체 생명을 육성한 대법이지 않은가.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법의 표준이 있다.

제자: “망념(妄念)을 탕진하면, 부처로 수련되기 어렵지 않노라.”에서의 망념은 사상의 업력을 가리킵니까?

사부: 맞는데, 사상 중 업력이 반영한 가장 많은 것은 헛된 생각을 하고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 모두 사람의 집착으로, 다수는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고, 얻으려고 하나 얻지 못하는 망상인바, 그러므로 망념이라고 하는데, 헛되이 마음을 쓰는 것이라, (웃으심) 바로 이러한

차에 이르면, 예를 들어서 그 일보에까지 수련 된다면, 예쁘기가 지금과 같지 않음을 느낄 수 있는데, 전혀 지상의 사람과 같지 않으며, 사람에서부터 거기까지 승화하여 조성된 경지의 표현이다.

제자: 에너지 마당은 신체의 어느 부위에서 특별히 강합니까? (웃음)

사부: 신수련생이 제출한 문제이다. 어디라 할 것 없이, 똑같이 강한데, 다만 당신의 신체의 민감 부위가 다를 뿐이다. 어디가 민감하다고 해서 어디가 강하다고 생각하는가? 신체의 변화는 공의 작용 하에서 같은 것이다.

제자: 중국대륙에는 두려움 때문에 나오지 않는 일부 수련생들이 있는데, 그들의 미래는 어떠합니까?

사부: 이런 일은 현재 나도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다. 사실 여러분도 아주 똑똑히 알고 있는바, 한 사람이 대법 중에서 이익을 얻었는데, 대법이 박해를 당하게 되었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한 말 한마디 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이 제도 될 수 있겠는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자. 한 사람이 위험에 부딪힌 것을 보고 그를 구해주었지만, 돌이켜 그가 그를 구해 준 사람이 재난을 당하게 된 것을 보고

2004년미국서부법회설법

李洪志

(2004년 2월 28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박수) 이번의 박해는 이미 몇 년간 지속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사악한 생명으로 말한다면 그것들의 생존환경 · 생존의 기회는 갈수록 작아졌고, 세상에서 이번의 박해를 만든 그러한 나쁜 사람들이 나날을 지내기도 갈수록 어렵게 되었다. 전체 정법(正法)의 형세로 보면, 현재 인간쓰레기와 망나니들이 만들어낸 이번의 박해에 대하여 세인들도 갈수록 명백해졌다. 특히 중국대륙의 사람들은 모두 각성하고 있고, 사람들도 모두 이번 박해의 사악함을 보게 되었으며, 이번 박해의 원인도 알게 되었다. 현재의 정황은 대법제자들이 진상을 똑바로 알리고 세인을 구도하고 박해를 폭로하는 데 대하여 갈수록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다수 세인들은 사악이 청리된 후 모두 청성(清醒)해질 수 있게 되었고 모두 자신이 이지적으로 法輪功(파룬궁)을 박해하는 문제를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나쁜 사람들이 계속 사악한 탄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갈수록 어렵게 했다. 세인들이

각성함으로 말미암아 사악들 또한 매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세인들이 더는 그것들을 위한 희생양이 되려 하지 않는바, 이는 사악의 요소와 악인들로 말하자면 정말로 사악의 탄압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 그러나 또 호랑이 등을 탔는지라 내려오기도 어렵다. 사악은 미친 듯이, 이지가 없이 박해를 한 단계 한 단계 더 강화하는데, 어떻게 해도 안 되는바, 점점 더 미쳐 날뛰다. 현재 내가 보기에 끝도 도달하여 내려오려고 해도 내려오지 못하며, 내려오지도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있다. 이번의 사악한 탄압을 세인들도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사악하기가 극에 달한 이번의 박해가 대법제자들에게 조성한 손상은 매우 심한 것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역사상에서도 전혀 있어 본 적이 없었던 이런 가장 악독한 한 차례의 박해였다. 다른 한 방면으로 말하면 대법과 대법제자에 대하여 저지른 것은, 무엇이든 모두 그들 자신에 대하여 저지른 것과 같다. 왜냐하면, 장래에 그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배로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주 중에는 선이 있고 악이 있으며, 반(反)이 있고 정(正)이 있으며, 좋음(好)이 있고 나쁨(壞)이 있다. 이 일체는 또 우주 중에서 상생상극을 조성하게 된다. 사실 사람은 보아내지 못하고 악인은 더욱 생각하지 못하는데, 이번 박해는 최초로 이미 그것들로 하여금 실패로 끝나게 되어

가장 미시적인 입자가 아닌 것으로, 그 더욱 미시적인 입자, 더더욱 미시적인 입자는 거의 무궁무진하게 미시적인데, 이는 미시적인 데로부터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면 더욱 큰 입자, 분자보다 더 큰 더더욱 큰 거시적인 거대한 천체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있는가? 정체상(整體上)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있어야 하는가? 우주는 하나의 번영하고 비할 바 없이 거대한 천체인바, 일체에 모두 생명이 있고, 일체는 모두 생명이며, 생명이 많기로 없는 곳이 없다. 생명의 좋고 나쁨과 생명의 많고 적음은 관계가 없는바, 일체 생명의 시일이 길고 짧은 그것은 과거 우주의 특성이 결정한 것으로, 과거는 바로 성주괴멸의 규율이 조성한 것인데, 장래의 법은 원용한 것이다.

제자: 현재의 모습은 元神(웬선) 및 수련 성취된 후의 모습과 같습니까?

사부: 이 문제는 이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바, 위로 올라 갈수록 더 아름답고 더 젊으며, 보기에는 당신과 같다. 당신이 오늘날 노년이든 중년이든 아니면 젊은 간에, 아마 당신의 元神(웬선)은 다 이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위로 올라갈수록 더 아름답고 더 예쁘다는 이 점은 틀림없다. 아름다움이라, 아름다움은 예쁨을 포함한다. 아주 높은 층

근본상태를 결정한다. 생명의 불순함과 부패된 생명이 아래로 떨어지기에 이르기까지 다 성주괴멸이 조성한 것이다. 성주괴멸 자체도 우주의 근본속성이 결정하는 것인데, 마치 근본속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다.

당신은 지금 사람의 사상으로 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니다. 우주의 생명이 많고 적음은 정수(定數)가 있는 것으로, 생명이 나쁘게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신은 없는 곳이 없고, 생명도 없는 곳이 없으며, 많아서 헤아릴 수 없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공기 중에는 공기를 구성하는 입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가 눈을 뜨면 보이는 일체 물체는 모두 미시적인 입자와 더욱 미시적인 입자가 더욱 큰 한 층의 입자를 구성한 것이다. 매 한 층 입자에는 모두 생명이 있는데, 게다가 매 한 층 입자에는 또 방대한 생명군(生命群)이 있으며, 어떤 것은 체현되는 공간이 다르다. 이런 것을 과학의 방법으로는 지금 볼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히 존재한다. 바로 이러한 정도로 많으며, 한 알의 흙을 들어 보아도 그 위에는 무수한 생명이 있다. 이것은 세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만약 한 입자를 당신이 그것을 지구만큼 크게 확대한다면, 당신이 보라, 위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있겠는가? 이 한 알의 흙도 아직

있었으며, 과정 중에서 오히려 대법제자들을 수련 성취되게 했다. 다시 말하면 악인들이 사용한 마음은 사악한 것이었지만, 공교롭게도 대법제자에게 대법제자로 성취할 수 있는 하나의 환경을 제공하였다. 물론 나는 이러한 정황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박해를 받는 중에서 나와 대법제자들도 박해를 제지하였고, 중생들로 하여금 대법에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한 구해낼 수 없는 생명은 한 사코 악을 행하려고만 할뿐, 일언일행 중에 정반(正反)이 함께 나오는 도리를 알지 못했다. 이 층의 구(舊) 우주 중에는 상생상극의 이치와 정반(正反) 두 종류의 요소가 있기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모두 일반일정(一反一正)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인류 사회가 하는 모든 일을 포함하여 모두 이 두 종류의 요소가 동시에 체현되어 나타날 것이다. 사람이 하는 한마디 말, 한 가지 일, 심지어 일념이 일어나는 것까지를 포함해 모두 정반 두 종류의 요소가 체현될 것이다. 마치 이번의 박해처럼, 그 목적이, 여러분이 다 잘 알듯이 출발점은 역시 매우 사악한 것이었지만, 그것의 결과는 악한 일을 하는 동시에 오히려 대법제자들이 박해를 반대하는 중에서 단련 성숙되게 했다. 게다가 박해가 엄중할수록 대법제자는 더욱더 성숙되는데, 악인은 이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나, 이 사부로서 말한다면, 정법 중에서

이번의 사악한 박해를 이용하여 대법제자를 고향하는 것을 나는 절대로 승인하지 않는바, 대법제자들도 박해를 감당함으로써 높게 수련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 대법과 대법제자는 박해를 반대하는바, 이 역시 대법제자로서의 책임이다. 법에서 수련하지 않고, 박해를 감당하는 자체로는 더욱 높게 수련할 방법이 없으며, 대법제자의 표준엔 더욱 도달하지 못한다. 구세력(舊勢力), 그것이 제공한 이런 이른바 환경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정법 중에서 내가 일체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대법에 동화되게 할 것이며, 이러한 사악 중에서 대법제자를 단련시키는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법은 반드시 성공하고, 대법제자는 반드시 성취된다. 그것들이 이렇게 하여도 나의 제자는 성취될 수 있고, 그것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나의 제자는 역시 성취될 수 있는바, 단지 사악이 기어코 이렇게 하려고 했을 뿐이다. 이렇게 되면 정법에 대하여 교란을 하게 될 것이며, 그것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는 중에서 죄를 범하게 할 것이고, 그것들 자신을 포함하여 수많은 생명과 세인으로 하여금 도태되게 할 것이다. 우주 중에서 확실히 일정일반(一定一反), 일리일폐(一利一弊)가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이런 요소를 체현하고 있다.

사람은 이런 이치를 똑똑히 보지 못한다. 속인이 사회에

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지 모두 대항해서 하거나 싸우려는 생각을 품고 하지 마라. 이것은 모두 맞지 않는 것으로서, 극단적이어서는 안 된다. 설사 영사관에 가더라도 그러하다. 사람에게 대해서는 역시 자비로워야 한다. 사악한 생명에 대해서는 또 다른바, 우리가 발정념 중에 청리하고 있는 그러한 인류에 속하지 않는, 사악한 박해를 만들어 내는 요마귀괴(妖魔鬼怪), 그러한 썩어빠진 귀신, 흑수(黑手)는 당신이 어떻게 대해도 모두 문제가 없지만, 사람에게 대해서는 선(善)해야 한다. 사람을 구도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을 구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에게 대해서 선하지 않다면 당신은 사람을 구도할 수 있겠는가?

제자: 생명체가 많이 생성됨에 따라, 어떤 생명체는 사(私)가 생겨,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는 우주가 부패한 원인의 하나입니까? 미래에도 그렇게 많은 생명체가 있습니까?

사부: 사(私)를 위하는 것은 과거 우주의 근본 속성이었는바, 성주괴멸(成住壞滅)과 생로병사(生老病死)도 이 속성이 가져온 필연성이었다. 장래의 법은 원용(圓容)한 것이고 공(公)을 위하는 것으로, 우주의 근본속성이 개변됨으로써, 우주의 과정과 생명의 특징(特點)으로 하여금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했다. 우주의 근본속성이 우주의

어떠한 과격한 일도 절대로 하지 마라. 당신이 중생을 구도 하기 위해 진상을 알리는 중에 다른 사람에게 과격하게 이야기한다면, 바른 일면(正面)의 효과를 일으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당신의 불선(不善)은 독해를 받은 사람의 사상 속의 그런 사악한 요소를 해체 시킬 수 없으므로, 당신은 바른 일면의 효과를 일으키지 못한다.

나는 이미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선(善) 그것은 가장해 낼 수 없으며, 표면적으로 유지하는 하나의 상태도 아니며, 선은 진정으로 내심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이며, 그것은 수련을 통해서만 비로소 얻을 수 있고, 비로소 체현되어 나올 수 있다. 중생들 앞에서, 당신의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당신의 염(念)이 움직이자마자, 좋지 않은 요소를 바로 해체 시킬 수 있고, 세인들을 독해하는 것과 사람의 사상요소 중의 좋지 않은 것을 바로 해체 시킬 수 있어, 사람은 알게 되고 당신은 그를 구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이 진정한 선(善)의 강대한 역량의 작용이 없다면, 당신은 그것을 해체 시킬 수 없고, 당신은 진상을 똑똑히 알리는 중에 작용을 일으키지 못한다. 특히 극단적으로 하는 이는,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 주겠는데, 절대 좋은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는바, 바로 당신이 수련한 능력이 체현되어 나오지 못하고, 당신의 선(善)도 체현되어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

서 한 가지 일을 하려고 하면, 사실 그가 염(念)을 내보내기만 하면, 혹은 일을 하기만 하면, 이미 두 가지 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과거에 수련인은 “좋고 나쁨은 사람의 일념에서 나온다.”라고 말하였는데, 이 한마디의 말의 다른 한층의 함의는, 일의 과정은 확실히 두 종류의 작용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중에서 오히려 대법제자를 단련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것들은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그것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것이다. 과거 우주의 이치는 바로 이런 절대적인 일반일정(一反一正)이 동시에 체현되는 것이었다. 인류사회 역시 이러한 것으로 일체 중에서 체현되고 있어, 속인이 무엇을 하려고 해도 모두 일정일반(一正一反)·일호일괴(一好一壞)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때리고 욕하려 하면, 때리고 욕하는 중에 동시에 또 상대방에게 더(德)를 주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장래에 또 실제로 갚아야 하는데, 이는 사람이 볼 수 없는 방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인데, 예를 들면 사람이 자기의 자녀를 교육할 때, 늘 그들이 사회에서 강자가 되도록 하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아이는 순진(純眞)·선량(善良)에서 갈수록 멀어지며, 우주의 특성과 갈수록 멀어지고, 신(神)에서 갈수록 멀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다. 사람은 자기의 자녀가 상해를 입는 것이 두려워 자기의 자녀에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지를 가르쳐주는데, 사실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지만, 당신이 그에게 이렇게 하라고 알려줄 때, 사람의 도덕·선량은 오히려 근본에서부터 파괴된다.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모두 이런 두 종류의 작용이 생성될 것이다.

대법제자에 대한 이 몇 년간의 박해도 충분히 이러한 상태를 체현해 냈다. 일개 정권이 어떻게 사람의 신앙을 박탈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사람의 사상자유를 박탈할 수 있겠는가? 이는 역사상에서도 종래 있어본 적이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해낼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심지어 수 천 년의 오랜 문명까지도 깡그리 모두 타파했으며, 과거 수 천 년 동안 유지해온 인류의 도덕표준을 일률로 깡그리 부정했고, 깡그리 타도했으며, 또 “발로 짓밟고”, “영원히 세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 해낼 수 있든 없든 간에, 이렇게 하는 동시에 또 이 일을 한 것에 대한 응보를 가져오게 되며, 이 역시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신앙이 없어진 중국인은 이로부터 오히려 도덕행위의 준칙(準則)을 잃어버렸고, 이러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감히 하며, 어떠한 나쁜 일이든 모두 할 수 있다. 사회의 부패는 전 방위적이며, 현재의 중국인은 입만 벌리면 바로

가서 청원하고, 동시에 환영을 표시하는바, 원래는 대단히 좋은 일이다. 그러나 法輪功(파룬궁)을 박해하는 패거리 중의 일부 깡패들이 기어코 일을 만들어, 진상을 모르는 프랑스 경찰들로 하여금 수련생을 교란하게 했다. 이 일 자체는 물론 사악이 만들어 낸 것이고, 法輪功(파룬궁)을 박해하는 깡패집단의 그 무리가 만들어 낸 것이다. 민주국가의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완전히 다른 국가, 사악에 통제당하고 있는 정부의 지휘에 따라 인권을 박해했는데, 이는 민주와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로서는 무슨 명예로운 일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법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한 것이다.

제자: 태국 대법제자들이 사부님께 문안드립니다.

사부: 여러분 감사하다. (박수)

제자: 어떤 수련생은 진상을 알리는 중에 냉정(冷靜)하지 못하고 언어가 과격합니다.

사부: 우리 대법제자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모두 선념(善念)에 입각하여 냉정하게 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든 아니면 어떤 활동에 참여하든, 모두 사람들이 대법제자의 아름다움과 대법제자의 선량함을 보게 해야 하며,

나는 과거에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한 적이 있다. 오늘날 이 특수한 형세·특수한 환경 하에서, 또 박해를 받는 이 특수한 형식이 나타났기에, 나는 다시 이 일을 좀 말해 보겠다. 이러한 책은 속인 사회 중에서 보급할 수 있으며, 대법제자들도 대법제자가 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또한, 속인 사회 중에서 널리 보급할 수 있으며, 여러분은 협조하여 할 수 있다. 모두 좋은 일이다. 단지 대법제자들 속에서 파동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이후에 법회에서, 대법의 책을 제외하고, 법 자체가 아닌 어떠한 자료·녹음 녹화(音像)자료 등등은 모두 법회에서 팔지 말아야 한다. 법회와 수련생을 시장으로 여겨서는 더욱 안 되며, 대법제자를 상대로 하여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홍법과 진상을 알리는 등 자료를 사회에 보급해야 하는바, 바로 이러하다.

아래에 한 단락을 이용하여 여러분에게 문제를 좀 해답해 주려고 한다. (박수) 여러분은 쪽지를 제출할 수 있는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자.

제자: 법률적으로 프랑스 경찰의 행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부: 중국 지도자가 프랑스를 방문한 기간에 여러분은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마치도 가정에서 늘 하는 말처럼 정상적이며, 어떠한 나쁜 일을 하여도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이 일을 한 정권에 좋은 점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 모두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일리일폐(一利一弊)는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사람이 속인 사회 중에서 인위적으로 어떤 목적에 도달하려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안 된다. 인류사회에 발생했던 어떠한 변혁·인류사회에 나타난 무슨 거동은 사실 모두 신이 조종한 것이다. 오직 신이 사람에게 하라고 해야만, 신의 작용으로 비로소 속인 사회 중에서 부동(不同)한 상태가 출현될 수 있다. 인위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바, 저층공간의 썩은 귀신(爛鬼)과 신(神) 역시 안 되는 것이다. 좋은 사람·수련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오직 가장 사악하고 가장 미련한 것들만이 비로소 이지가 없는 이러한 일을 해낼 수 있다. 장래에 인류는 역사에 대하여 모두 새롭게 인식할 것이다. 특히 근 백 년 이래의 역사를 새롭게 기념할 것이다.

어떻든, 박해를 반대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보았듯이, 대법제자들은 성숙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세인들도 갈수록 각성하며, 사악과 세상에서 박해를 만든 악인은 갈수록 몰

락을 향해 가고 있는바, 그것들이 이용한 일체의 권력, 이용한 일체 통치방식은 모두 이번에 法輪功(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함으로써 역사에 따라 곧 도태될 것이다. 여러분도 보았듯이 반드시 이러할 것이다. 그럼 대법제자로서 이러한 형세에도 세인을 구도하고 진상을 알리는 것은 이미 어렵지 않게 되었다. 우리가 눈앞에서 본 상황이 이러한데, 앞으로는 여러분이 진상을 알리기가 더욱 쉬워질 것이다. 세인들이 갈수록 명백해지기 때문인데, 사람들은 주동적으로 당신을 찾아와 진상을 들을 것이고, 사람들은 주동적으로 당신을 찾아와 공(功)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은 곧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 뿐만 아니라 중국대륙에서 또 전 인민이 모두 박해를 반대하는 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박수) 사람이 무엇을 하든 모두 자신에게 한 것이며, 대법제자에 대한 박해는 바로 박해자 자신에 대한 박해로서, 이는 우주의 특성이 결정한 것이다. 애초에 法輪功(파룬궁)을 박해한 것 역시 일종 전 인민의 운동이었다. 일리일폐(一利一弊)라, 최후의 결과를 보도록 하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자기가 강대하다고 느끼고, 당신의 선전기계가 아무리 미친 듯이 날뛰어도 소용이 없다. 깡패의 거짓날조와 기만 그러한 수단은 수련인에 대해서 소용이 없으며, 신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당신이 소란을 피워대

어, 그들로 하여금 법을 얻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분은 또 이번의 박해 중에서 대법에 대하여 깊은 방법이 없는 죄업을 범하여 곧 도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또 일부분은 대법에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수련할 수 없게 되어버려 곧 미래의 새로운 기원에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장래의 일이다.

다음으로, 말한 김에 한 가지 일을 더 말하겠는데, 최근 아주 많은 대법제자가 일부 책을 썼다. 일부 것들을 내가 간단히 보았는데, 출발점은 모두 매우 좋았다. 대부분 쓴 것이 모두 수련과 박해를 받은 것 및 박해를 반대하는 내용이지만, 대법제자 중에서 유전시켜서는 안 된다. 전제는 긍정적인바, 여러분은 책의 형식으로써 법을 실증하고 있고, 세인을 구도하고 있는 것으로, 한 것은 대법제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러분은 모두 대법제자들이 원만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어떠한 일도 모두 오늘날의 대법제자들이 법을 실증하는 이 형식을 교란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중대한 일에 관련되는 일이다. 법 공부를 제외하고, 어떠한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절대로 대법제자 중에서 대법 자체에 속하지 않은 어떠한 것을 유전시켜서는 안 되며, 절대로 대법제자들에게 교란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바,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해낼 수 없으며, 모두 개괄적 형용이다. 애초에 하려던 일은 모두 하였는데, 사실 우리 자신의 우주는 다 하였다. (박수) 오직 이 거대한 천체로 하여금 존재하게 하는 최후의 그러한 요소들만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근본적으로 인류 표면의 것들을 격리시킨다.

현재 인류 사회에서 표현되어 나오는 상태는 우주 정법의 형세와 매우 유사하며, 갈수록 명백해지는데, 내 생각에 이 형세는 아마 더욱 빨리 변하게 될 것이다. 법정인간이 시작한 후가 되면 그럼 진정으로 사람에게로 미치게 될 것이다. 정법이 개시될 때 삼계 이 부분을 이미 포위하였다. 이러면 삼계는 원래의 우주 천체와 격리되어, 위의 중생과 아래의 중생은 접촉할 수 없게 되며, 장래에 인간의 일을 할 때와 삼계 밖은 또한 어떠한 관련도 없게 된다. 근대에 상계(上界)의 중생들도 이 일체를 보게 되어 분분히 정법하기 전에 하세하여 환생하였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기에는 여전히 이 가족이지만, 실제로 인피 안은 모두 원래의 생명이 아니다. 허다한 고층생명이 법을 얻으려고 내려와서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 뿐만 아니라 허다한 같지 않은(不同) 요원한 우주 천체에서 온 생명이다. 사실 이번 한 차례 대법제자가 법을 실증하는 중에서 또 많은 사람이 마땅히 법을 얻어야 했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애초에 구세력에 의해 격리되

고 나면 신은 당신과 결산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러하다.

대법제자로서 말할 때 여러분은 더욱더 청성(淸醒)해야 하는바, 사악이 완전히 타파되기 전에 역시 힘써서 진상을 똑바로 알리고 세인을 구도해야 하며, 대법제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해야 한다. 대법제자가 오늘날 하는 일체는 모두 대법제자가 법을 실증하는 일로서, 모두 당신들이 신의 길을 걷는 것이다. 최후의 단계에서 느슨히 해서는 안 되며 계속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잘해야 한다.

어떤 수련생은 주의해야 하는바, 내가 매번 사악이 갈수록 적어지고 갈수록 전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 아주 많은 수련생은 곧 “오” 하며 다른 일을 모두 놓고, 전문적으로 대법의 일을 해야 한다고 느낀다. 이는 안 된다. 대법제자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극단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당신들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정상적으로 수련하면서, 동시에 대법제자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야 하는데, 현재는 바로 이러하다. 속인 사회 중에서 대법제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들 외, 형식상에서는 어떠한 구별이 없다. 당신은 하나의 수련하는 사람일 뿐 표면상으로는 속인 사회와 마찬가지로이다. 이러할 뿐이다. 당신들이 오늘날 한 것들은 바로 미래를 개창해 준 것이며, 이 한 갈래의 길은 바로 이렇게 걸어간다. 이는 가장 바른 한 갈래의 길이며, 미래의 수련인이 참

조할 것인바, 그러므로 당신들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게 일을 해서는 안 되며, 또한 어떠한 극단으로 가셔도 안 되는데, 그것 또한 인위적으로 자신이 자신에게 장애를 만들어 줄 것이며, 번거로움을 만들어주게 된다. 나는 당신들에게 어떠한 하나의 극단적인 생각도 하라고 하지 않는바, 그것은 아마 모두 일종의 집착으로 번거로움을 조성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을 우리는 이미 아주 많이 겪었다. 내 생각에 대법제자로 말하면, 오늘날 이 한걸음에 이르러 아주 많은 일은 모두 매우 분명해졌으며, 갈수록 이지적으로 되었고, 부딪힌 문제 역시 어찌 된 일인지 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방면에서 마땅히 매우 청성(淸醒)해져야 하며, 다시는 일부 어떤 일 때문에 교란을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한 점은, 대법제자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일체는 모두 법을 실증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들의 인식과 제고는 모두 법 중에서 오기 때문이다. 그럼 대법제자로 말하면, 당신들은 당연히 법을 실증해야 하며, 그것은 무슨 말 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법을 실증하는 중에서 한 일체는 모두 당신들 자신에게 해 주는 것으로서, 내가 당신들에게 하라고 한 것을 포함하여 어떤 한 가지 일도 나에게 해 주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매 대법제자는 원만을 향하여

두 목적에 도달할 수 없으며, 최후에는 모두 정법의 필연적 결과에 따라 원용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리하다. 정법에 대하여 교란을 하였으면, 그럼 정법 중에서는 곧 이 교란형세를 이용해서 하는데, 최후에는 역시 정법이 필요한 목적에 도달하게 되는바, 반드시 이리하다.

장래에 대법제자가 걸어 지나온 후, 여러분이 그 일체를 본다면, 반드시 이러한 것이다. 우주의 신으로 말하자면, 그가, 우주가 흥쇠(興衰) 중에서 성주괴멸을 향하여 나아가는 최후 과정의 무서움을 보면, 누구도 훼손되려고 하지 않으며, 모두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 자신을 보호하려면 반드시 전 우주가 구원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중생들은 온갖 방법을 생각하여도 결국에는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다. 더욱이 이 시기의 생명이 생각한 방법·한 일은 모두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는데, 아무리 높은 생명이라 하더라도 모두 그를 진선(盡善)한 것·진미(盡美)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두 목적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주의 중생은 또 최후의 이 무서운 후과(後果)를 보게 되어, 모두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하였기에, 우주 중의 구세력의 출현을 조성하였다.

우주의 전체 정법이 오늘 이 일보로 걸어오게 된 것을, 사실 나는 이미 사람의 언어로 더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법을 실증하는 중에서 여러분도 보게 된즉, 또 하나의 문제가 존재하는데 바로 구세력의 출현은 정법 및 대법제자들로 하여금 모두 심각한 교란을 받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교란을 하든, 한 일이 아무리 사악해도, 여러분이 뒤돌아보면, 사실, 모두 여래 부처의 손바닥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박수) 보증하건대 이러하다. 구세력·썩은 귀신(爛鬼)과 악인이 무엇을 하려고 하든지 최후에는 모두 나의 정법의 요구에 따라 완성해야 한다. 중간에 나타난 그런 각종 교란이라든가, 일부 수련생들의 각종 표현 상태라든가, 모두 구(舊) 우주 생명이 성주괴멸의 최후에 체현해 낸 상태에 불과하며, 정법에 대한 일부 교란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법 자체에 대해서 말한다면 누구도 파괴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법제자가 어떠한 고통을 받았다 하여도 최후엔 모두 신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은 모두 법 중에서 하나의 이치를 알았는데, 이 우주 중에서 어떠한 생명이 받은 고통이든 모두 헛되이 받은 것이 아니다. 특히 대법을 수련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뿐만 아니라 정법시기의 대법제자로서, 오로지 최후까지 여전히 법 중에 있다면, 어떠한 결과이든 기다리고 있는 것은 모두 원만이다. 다시 말하면, 사악 그것이 어떻게 박해하든지 모

결어나가는 과정 중에서 모두 자신의 위덕을 건립해야 하며, 특히 대법이 육성해낸 생명으로서, 당신들이 법을 실증하는 중에서 모두 체현되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법제자가 한 일은 모두 위대한 것이다. 보기엔 가장 간단한 전단지 배포, 세인들에게 진상을 알리는 것, 영사관에 가서 발정념(發正念) 하는 것을 포함하여, 대법제자는 정부사회·지역사회·매체의 일을 하는 등등 각종 형식의 법을 실증하는 이 일체는 모두 자신에게 위덕을 수립하여 주고 있으며, 모두 최후 원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당신들이 한 일체, 자그마한 한 가지 일을 포함하여 모두 자신에게 해주는 것이며, 대법에 해주는 일은 한 가지도 없고, 나, 이 사부에게 해주는 것 역시 한 가지도 없다. (박수)

장래에 당신들은 모두 보게 될 것인바, 법회에서 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평소에 내가 무엇을 더 말하는 것은 매우 적은데, 왜냐하면, 매 개인은 모두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하며, 매 개인 역시 반드시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만 비로소 위덕을 건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시시(時時)로 곳곳에서 더는 예전처럼 그렇게 당신들을 밀면서 갈 수는 없다. 단순한 법 공부 및 개인수련의 그 시기는 이미 지나갔는데, 현재는 바로 대법제자가 당

신들 최후의 것과 당신들이 필요한 그 일체를 원만 시키고 있다. 보기엔 마치도 대법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 같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 “나는 사부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부님께서 나더러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웃으심)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은 아니다, 내가 당신더러 하라는 것 역시 당신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다.

법은 어떠한 생명도 파괴할 수 없는바, 그는 선천적으로 지니고 온 것이며, 그는 기성의 것이다. 단지 중생에게 전해 주고 중생을 구도하는 것인데, 진정한 법의 구체적 표현형을 얼마나 많은 생명이 볼 수 있겠는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법의 실질을 보지 못한다. 당신들이 보게 된 그 法輪(파륜)은 단지 공의 형식일 뿐, 진정으로 법을 정하는 그 룬(輪)은 일반 생명이 보기가 매우 어려우며, 고층이라 하여도 역시 볼 수 없다. 누가 정말로 법을 파괴할 수 있겠는가? 누구도 파괴하지 못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적이 있는바, 중생을 구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정체적인 각개 층차의 생명으로 하여금 모두 법을 얻을 수 있게 하고, 모두 구도 될 수 있게 하려면, 반드시 우주의 이 생명의 가장 낮은 층차인 사람 여기를 선택하여 설법해야 한다. 그러므로 각개 층차의 생명은 모두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럼 여기에서 설법하면, 여기의 세인들이 누가 와서 법을 들어야 하는가? 곧 이러한 생명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생명은 바로 오늘의 대법제자이다. (박수) 정법은 반드시 구(舊) 우주가 성주괴멸(成住壞滅)의 최후의 그 일보에 도달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바, 다시 말하면 가장 곤란할 때에 중생과 전체 궁체를 구도해야 한다. 당초에 삼계를 만든 목적은 바로 이 시점에서 정법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그렇다면 삼계 안의 중생은 누구이고, 어떠한 생명이 여기에 있어야 하며, 장래에 어떠한 생명과 어떠한 생명의 존재방식이 필요하며, 생명의 사유방식·생명의 행위와 문화 등등을 포함하여, 모두 곧 역사과정 중에서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정법 중에서 보면, 안배한 것이 매우 차(差) 한바, 왜냐하면, 구세력의 형성으로 조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많고 많은 방면은 모두 우연한 것이 아니며, 모두 질서가 있다. 바로 매우 질서가 있기 때문에 보기에는 매우 자연스럽다. 그러나 법을 전할 때 대법제자들이 대법의 문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지, 만약 관(關)을 넘길 때 그래도 수련하는지, 최후의 원만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지가 나타나고, 일단 박해 혹은 각종 기타 방식의 교란이 나타난다면 대법제자가 법을 실증하는 중에서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방면에서는 개인을 보아